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9.3~4)

1. 한일 분쟁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동방재부저널(东方财富快讯)은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기업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용 보도¹⁾

o 일부 공급업체와 전문가는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체인에서 일본의 독점지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

* 외부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체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,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선을 발굴할 것이라고 보도

- 환구망(环球网)은 양국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,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,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으로 한일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²⁾

o 한일 분쟁은 무역 분야에서 발발하였지만 핵심적인 갈등은 역사문제에 있으며 안보 분야(지소미아)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도

o 대립관계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관광 및 소비 분야에서의 ‘탈일본’ 현상이 지속되어 일본의 제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

*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의 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볼 것임.

- 장안금융망(长安金融网)은 한일 분쟁이 중국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시사점을 준다고 보도³⁾

o 한국의 독도 군사훈련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(8월 31일)은 일본을 더

1) 「韩国已采取行动业内人士：日本可能搬起石头砸自己的脚」, 『东方财富快讯』(2019. 9. 3)

2) 「日韩争端持续升级」, 『环球网』(2019. 9. 4)

3) 「日韩纷争对中国有影响也有启示」, 『长安金融网』(2019. 9. 4)

욱 자극하여 한일 관계가 단기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* 과거와 달리 이번 분쟁은 경제 및 정치 관계가 모두 악화되었고, 지소미아 종료로 양국의 군사안보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, 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국민의 민족주의가 고조됨.
- * 한일 양국 모두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양국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며, 아베 정부의 임기인 2021년,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는 현재 국면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
- o 또한 군사안보 측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발전, 특히 한반도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며,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한미일 삼각관계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
- * 또한 중일관계 개선과 한중관계 안정이라는 조건 하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관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